

9월 동향

- 02 | 제11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06 | 제44차 집행부 회의
09 | 제12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09 | 학원정상화 범대위 총장 간담회
13 | 제45차 집행부 회의
16 | 제14대 울산대 노조 출범식 참석
- 16 | 제13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27 |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참석
28 | 제46차 집행부 회의
29 | 학생행복센터 개소식 참석
30 | 역대 위원장과 신입직원 간담회
30 | 제14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알림

법인재산을 개인 돈처럼... '유령교수' 봉급 업무추진비로 [교수신문, 2010. 9. 24]
"2009 사립대 감사백서"로 본 사학 비리 백태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08>
[기초수업] '사학비리'와 '교과부'를 보는 시선 [교수신문, 2010. 9. 24]
사학 비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학 법인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부 대학의 비리를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호도한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10>
J일보 [2010 대학평가] 관련 기사 [J일보, 2010. 9. 27]
대학평가 ① 종합평가 - 교육중심 대학, 글로벌 연구 경쟁력

대학평가 대원칙은 '공정성·객관성'... 대학평가 이렇게 쓰입니다.
<http://article.joins.com/issue/issue.asp?sid=5984>

각계 전문가 29명 '선진화, 길을 묻다' [서울신문, 2010. 9. 28]
새날 광화문광장서 릴레이 강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928029015>

[사설] 주목되는 이화여대의 '장학금 확대' 실험 [한겨레, 2010. 9. 27]
이화여대가 내년부터 취약계층 입학생에게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441168.html>

2010학년도 대구대학교

직원 어울마당 운동회

「2010학년도 직원 어울마당 운동회와 다짐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010. 10. 16(토) 10:00~16:30
- 장소: 대구대학교 제1운동장(서문 인근잔디구장)
- 참가대상: 전 직원

【행사내용】
단체경기, 구기운동, 명랑운동, 번외경기, 행운권 추첨 등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신입 DU

>> 2010학년도 2학기 신입조합원 소개

새 식구가 됐어요 인사드립니다!



박주희 조합원

윤선호 조합원

전미애 조합원

정진욱 조합원

김병래 조합원

어느 멋진 날

국제교류팀 박주희

2010년 7월 29일. 그녀는 경주 서라벌 대학 기숙사에서 눈을 뜨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초등 영어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대구대였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치치마자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왔습니다. "대구대학교 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학교생활에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국제교류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퇴근 후에 선생님들을 만나 귀중한 이야기 듣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행, 등산, 영화, 쇼핑 등을 좋아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요즘을 같이 날씨가 멋진 날에는 드라이브를 떠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바빠서 이 모든 것을 기쁨(?) 마음으로 제쳐두기로 했습니다. 국제교류팀에 올때미가 또 한 명 늘었네요^^ 그녀에게 응원하는 말씀 주시면, 그녀... 너무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not make your life too complicated.(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좌우명 아래 단순&클한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하는 그녀의 별명은 점메, 전아개... 취미는 좀 사는 집 사람이나 한다는 '여행&맛집탐방'입니다. 30대 중반까지 화려한 싱글을 꿈꿨던 그녀를 누가 좀 말려주세요. 후회하는 사람 많다고^^ 젊음과 빠가지 이 큰 대구대에 바치겠다는 그녀! 쿨하게 많이 가르쳐주고 고려해 주세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산학연구지원팀 정진욱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PRESENT'(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그리고 오늘은 선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PRESENT'라 부른다)." 애니메이션 '콩푸 팬더'에서 소개된 이 짧은 대사는 현재를 고민하게 만들어 준 강한 영향력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90% 사람이 어제를 고민하고, 10%만이 미래를 고민하여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에 충실하기로 결정한 뒤 모든 것이 제게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쉬운 것 보다는 항상 어려운 길을 택하기로 하여 대학시절 방학 때면 공단에서 막노동부터 설계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첫 직장이었던 KCC에서의 영업활동을 통해 현재의 가치와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대구대 산학연구지원팀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간 HISTORY들은 지금의 나를 위한 보배가 되었으며 매 순간이 모두 선물이자 감사의 대상입니다. 업무 중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만나 뵙는 선배님들...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저의 미래는 MYSTERY입니다. 미스터리한 단어에는 '불안, 초조, 기대, 희망...' 등 수많은 뜻을 담고 있지만 저는 그 속에서 '기대'와 '희망'이라는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오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학교에 뼈를 묻을 또 한 사람

입학사정관팀 김병래

병래씨는 2010년 9월 1일자 신입직원입니다. 올해 27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많은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대를 위해 졸업한 그는 모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기 땅도 아닌데 누구처럼 학교에 뼈를 묻겠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등산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하니 산악회 총무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듯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정작 축구동호회의 제의에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를 과정을 대변한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며 스스로를 병래씨로 소개하는 그는 생김새만큼은 순박하게 보이지만 그 열정은 아주 대단합니다. 평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 인터넷동호회 활동을 즐겨하고 있고, 특히 테드코,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아 관련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래씨는 끝인사를 꼭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싱글을 꿈꾸며

대외협력팀 전미애

2009년 졸업, 2010년 입사..... 진정한 대구대 마니아로 거듭나다! 대구 경일여고를 졸업하고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에 입학한 그녀는 1년 휴학을 포함, 5년을 이곳에서 생활하며 대구대 냄새도 이제는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네요. 어려운 취업난속에 당당하게 입사한 그녀는 누구처럼 이제 이곳에 뼈를 묻게 되었다고 행복해합니다.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성격 탓에 "Do

20대의 마지막 출발

산학연구진흥팀 윤성훈

반갑습니다. 9월 1일자로 산학연구진흥팀에서 근무하게 된 윤성훈입니다. 20대의 마지막 해에 새롭게 대구대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면접과정에서 총장님과 여러 처장님들을 만나 빈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새 부서 업무에 열중하는 중입니다. 특히, 기술이전과 같은 업무들을 직접 다루어 본 것은 처음이라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만큼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우리 대학도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수입이 많아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학생들도 공학·디자인 등의 전공수업에서 실용시간, 특허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여자 친구가 없지만 대학가 잘 통하고 배려심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팀 이준중 선생님의 결혼 소식에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네요^^;;

개념잡제프로젝트 >> 경조사 예절

사회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조사 예절, 나는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 지금부터 자신을 냉정히 평가해 봅시다.

(홍보부) 참고도서 업무력 (조재현 지음 | 미디어월)



다음 보기를 보고 자신의 평소 모습과 비슷한 항목에 체크하세요.

- 집들이나 돌, 백일잔치, 생일잔치 등에 초대받지 않아도 꼭 참석한다.
- 창업이나 개업식에 초대받았을 때는 언제나 빈손으로 방문한다.
-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때 식대보다 적게 내야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 조문을 대비한 검은색 슈트나 넥타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분향을 할 때 향에 불을 붙인 다음 한 손으로 향로에 꽂는다.
- 조문 시 절을 할 때 손을 어떻게 포개든 상관없다.
- 절을 할 때 성별이나 손윗사람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선다.
- 조문을 마쳐면 유족을 붙잡고 계속 말을 시키면서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꼬치꼬치 캐묻는다.
- 문상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아무렇게나 큰 목소리로 통화한다.
- 자신의 경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말의 답례도 하지 않는다.



7~10개

개념지수
0.001%

4~6개

개념지수
45%

1~3개

개념지수
92%

차고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륜지대사라 했습니다. 주변사람들의 경조사에 모두 참석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장례식에는 가급적 꼭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경조사 예절은 반만 아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 보다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문 시 공수(拱手)를 예로 들어보죠.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손을 포개고 여자는 왼손이 위로 오도록 포개야 합니다. 어때요. 제대로 알고 있었나요?

갑작스런 조문을 대비하여 사무실에 검정색 정장과 넥타이를 비치하거나 축의금, 조의금은 최소한의 식대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당신의 행동은 청정한 만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직 아름다운가 봐요.